

고구려 관모(冠帽)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정완진·이순원

目 次	
I. 서 론	6. 羅冠
II. 고구려 관모의 종류	7. 角冠
1. 巾	8. 笠
2. 幘	9. 金銅冠
3. 折風	III. 결 론
4. 蘇骨	참고문헌
5. 鳥羽冠	ABSTRACT

I. 서 론

인간과 네발동물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뚜렷한 차이점의 하나로 보행방식을 들 수 있다. 인간이 다른 네발동물과는 달리 直立步行을 하게 되면서 체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났는데, 다리를 제외한 신체 각부분이 같은 높이상에 위치하는 수평적 체형에서 신체 각부분이 上下로 배열되는 수직적 체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¹⁾ 이로 인해 인간은 가늘고 짧은 목으로 크고 무거운 머리를 지탱해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목을 자유자재로 여러 각도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게 되어 인간의 눈에는 보는 각도에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대방을 바라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눈높이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 부분을 보는 것이 常例가 되었는데, 자신이 타인의 頭部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타인 또한 자신의 頭部를 바라본다는 것을 의식한 인간은 신체를 장식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느 부위보다도 頭部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²⁾ 또한 인간의 의식 활동을 주관하는 중요 기관인 腦가 위치하는 頭部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신체보호상의 목적에서도 頭部가 중시되었다.

이러한 장식상, 신체보호상의 이유로 생겨난 頭部 중시 사상은 관모가 다른 어떤 복식보다도 多種多樣的 변화를 보이며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관모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고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관모로서 모습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관모는 삼국시대의 관모에서 찾을 수 있다.³⁾ 그런데 삼국 가운데서도 고구려는 문헌 기록이 비교적 많고 고분벽화에서 수많은 着用例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삼국시대 관모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고구려 관모가 차

1) 相川佳子は '前後의 체형'과 '上下의 체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相川佳子, 『續衣の文化人類學』, P.H.P 研究所, 1983, p.28)

2) 相川佳子, 앞책, pp.16~28

3)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고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p.168

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冠帽史에서 고구려 관모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고구려 관모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학자들간에 異見을 보이는 곳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 이는 先學들의 관심이 折風과 鳥羽冠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 고구려 관모에 관한 재검토를 통해 고구려 관모 전반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공산권 국가와의 문호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 발굴된 고분벽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소개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한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II. 고구려 관모의 종류

본 연구에서는 문헌 기록과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 관모를 종류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에 사용된 문헌 기록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고찰에 사용된 고분벽화는 총 33기이다.

<표 1> 고구려 관모 關聯 史料

번호	書名	내용
<1>	『三國志』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2>	『後漢書』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著幘 如冠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3>	『南齊書』	高麗俗 服袴褶 冠折風一梁 謂之幘 知讀五經 使人在京師 中書郎王融戲之曰 服之不衷 身之災也 頭上定是何物 答曰 此即古弁之遺像也
<4>	『魏書』	其官名有謁者 太奢 大兄 小兄之號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5>	『梁書』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所著幘 似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6>	『周書』	丈夫衣同袖衫 大口袴 白牽帶 黃革履 其冠曰骨蘇 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 其有官品者 又插二鳥羽於其上 以顯異之
<7>	『隋書』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 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8>	『南史』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所著幘 似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9>	『北史』	人皆頭著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10>	『翰苑』	金羽以明貴賤…梁元帝職貢圖云…貴者冠幘 而後以金銀爲鹿耳 加之幘上 賤者冠折風
<11>	『通典』	高麗樂工人 皆紫羅帽飾以鳥羽
<12>	『舊唐書』 列傳 高麗	衣裳服飾 唯王五采 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其冠及帶 咸以金飾 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 及金銀爲飾 衫筒袖 袴大口 白牽帶 黃革履 國人衣褐戴弁 婦人首加巾幘
<13>	『舊唐書』 高麗 音樂條	高麗樂工人 紫羅帽 飾以鳥羽
<14>	『新唐書』	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鈿 大臣青羅冠 次絳羅 兩鳥羽 金銀雜釧 衫筒袖 袴大口 白牽帶 黃革履 庶人衣褐戴弁 女子首巾幘
<15>	『冊府元龜』	高句麗其公會皆錦繡金銀自飾 大加主簿皆著幘 如冠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1. 巾

巾은 ‘뒹거나(拭)’, ‘허리에 차거나(佩)’, ‘덮어 씌우는(覆)’ 용도로 사용되는 천을 총칭한다.⁴⁾ 『玉篇』에 “佩巾本以拭物 後人著於頭”라 하였으니巾이라는 것은 원래 허리에 차는 수건이었는데 後에 머리를 둘러싸는데 사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남자의巾

벽화에 보이는 남자의巾은 黑色의 천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 뒤에서 묶은 형태이다.(그림 1) 착용 신분층은 侍者, 악사, 교예인이 대부분이고 귀족의 경우에는 鳥羽冠을 착용할 수 없는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이 騎馬時 혹은 狩獵時에 착용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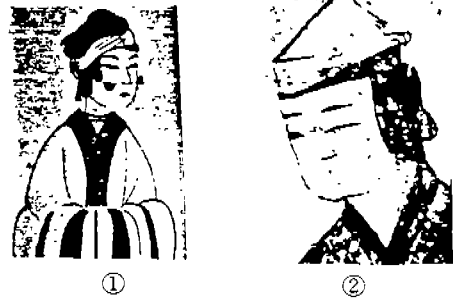
<그림 1> 남자의巾(修山里 古墳)
[출처: 『한국복식의 역사』 고대편]

으로 보인다. 다만 평상시에도巾을 착용하고 있는 貴人인 듯한 사람이 보여 상류층에서도 寢寤時에는巾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귀족소년의巾 착용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신분이 높아도 나이가 어린 소년의 경우에는巾을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巾을 쓴 인물은 대부분 활동적인 窄袖騎袴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고구려 남자의巾은 머리가 흘러내려오지 않게 해 주는 실용성이 주된 착용동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여자의巾

벽화에 보이는 여자의巾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을 길게 접어서 이마 위에 두른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천을 넓게 펴서 머리 윗부분을 모두 감싼 형태이다.(그림 2) 前者를 結首式, 後者를 覆髮式이라 할 수 있다.⁵⁾ 색은 두가지 모두 흰색인데 覆髮式巾의 경우 밑의 접힌 부분에 붉은 색이 보이고 있어서 겉은 흰색이고 안은 붉은색인 두 겹의 천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림 2> 여자의巾: ① 結首式巾(雙楸塚)
② 覆髮式巾(角抵塚)
[출처: 『韓國美術全集』4 壁畫]

벽화를 보면 覆髮式巾은 모두 袍와 裳을 입은 귀부인의 관모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 結首式巾은 侍女級에서도 着用例가 보이며 襦와 裳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覆髮飾이 結首式에 비해 높은 신분층의 관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結首式의 경우에도 부인 측근의 비교적 지위가 높은 시녀가 착용했다고 생각되며 낮은 신분의 시녀인 경우에는 주인의 바깥 나들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고구려 여성의巾은 儀禮의 성격이 강해 제한된 경우에만 착용하였던 것 같다.

한편 이여성⁶⁾이래 많은 학자들은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여자의 머리수건을 『舊唐書』와 『新唐

4)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中華民國 56年, p.70
5) 강순제, “우리 冠帽의 始末에 關한 研究 - 男子 便服 冠帽을 中心으로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26
6) 이여성, 『조선복식고』, 백양당, 1947, p.170

書』의 기록에 의존해 巾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巾幘이 머리수건이 아니라 假髻의 일종이라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⁷⁾

고구려 巾幘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舊唐書』, 『新唐書』의 기록에는 “여자들은 머리에 巾幘을 가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⁸⁾ 巾幘이 여자의 首飾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幘이나 折風이 기록된 다른 史書들의 경우에는 뒤에 수식어를 덧붙여 형태를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있는데 반해, 巾幘에 대해서만 설명이 없는 것은 고구려의 巾幘이 중국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므로 고구려의 巾幘은 중국의 巾幘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巾幘에 대해서도 이것을 머리수건으로 보는 견해와 假髻로 보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

王宇清은 巾幘을 부인의 祭服 등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의 머리로 만든 ‘帷’ 또는 ‘巾’狀의 머리장식이라 했으며 正字通을 인용하여 철사로 테를 만들고 곁에 머리털을 둘러 엮은 假髻의 일종으로 보았다.⁹⁾ 또한 周汎과 高春明은 巾幘이란 순수히 假髻로만 만들어진 髮髻 모양의 장식품으로 모자처럼 머리 위에 덮어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 杉本正年은 漢代 귀부인의 머리장식에 사용한 얼룩소나 말의 꼬리털 혹은 絹絲로 만든 假髻를 巾幘이라 하였고¹¹⁾ 張末元은 머리털로 만든 頭巾式의 머리장식을 巾幘이라 하였다.¹²⁾

이상의 학자들은 모두 巾幘이 假髻의 일종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林巴奈夫는 巾幘을 머리수건으로 보고 있다.¹³⁾ 그는 『說文』의 “幘婦人首

飾”을 인용하여 幘을 부인의 머리장식이라 하였고 『釋名』의 “箇恢也 恢廓覆髮上也…”를 인용, 넉넉하고 크게 하여 머리를 덮는 것으로 현대 요리사의 모자와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後漢書』 輿服志의 “太王太后 皇太后入廟服…左右一橫簪之 以安箇結”을 인용, 箇는 左右에서 묶었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학자 李圭景도 幘을 머리수건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幘은 원래 ‘箇’字로 卷幘을 말하는데 수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巾’字를 붙여 ‘幘’字로 만들었다고 하였다.¹⁴⁾

그런데 林巴奈夫의 경우, 그가 근거로서 제시한 『說文』, 『釋名』, 『後漢書』의 기록 중 어디에도 巾幘이 천으로 만들어졌다는 언급은 없다. 다만 그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시킬만한 머리수건 형태의 것이 畫像石과 陶俑 등에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巾幘이 머리수건이라는 주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인용한 세가지 기록은 모두 ‘머리수건’으로도 ‘假髻’로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문장이다. ‘首飾’이란 머리수건과 假髻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恢廓覆髮上也”라는 문장도 巾幘을 모자처럼 머리에 쓰거나 얹게 만들어진 假髻라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통한다. 또한 假髻도 머리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비녀의 존재를 필요로 했을 것이므로 “左右一橫簪之 以安箇結”이라는 기록도 巾幘이 머리수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李圭景의 경우에도 幘이 머리수건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幘을 假髻로 보는 견해까지도 함께 인용하고 있으며¹⁵⁾ “幘은 우리나라 말로는 於如摩尼라고

7) 김용문, “假髻와 步搖에 관한 研究 -中國을 中心으로-”, 『服飾』18호, 1992. pp.213~214
강순제, 앞논문, pp.26~29

8) 『舊唐書』 “婦人首加巾幘”, 『新唐書』 “女子首巾幘”

9) 王宇清, 『歷代婦女袍服攷實』, 臺北: 中國旗袍研究會, 中華民國 64年, p.38

10) 周汎·高春明, 『中國歷代婦女裝飾』, 香港: 三聯書店有限公司, 1988. p.49

11)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 54年, p.209

12) 張末元 著, 金英淑 譯, 『漢朝服裝圖樣資料』, 東洋服飾研究院, 1984. p.84

13) 林巴奈夫, 『漢代之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昭和 51年, pp.79~80

14)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稿』 卷15, 東國婦女首飾辨證說, “幘本作箇 卷幘也 以巾爲之 故從巾而作幘” (손경자·김영숙, 『한국복식사자료선집』 3, 交문사, 1982. p.418에서 재인용)

15) 李圭景, 앞책, “周禮注若今假髻 卽假髻 周織絲爲圈 外編以髮”, “後漢 輿服志 太皇太后入廟…翦箇箇”

하는데, ‘於如’는 ‘두른다’는 의미의 方言이며 ‘摩尼’는 ‘머리’의 方言이다. 즉 머리에 두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녀자들이 혼인할 때 써서 首飾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서¹⁶⁾ 그 자신도 幘이 머리수건인지 假髻인지 확실히 결정내리지 못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市幘이 ‘여자의 머리수건’이라는 견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市幘은 머리수건이 아닌 假髻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고구려에서 假髻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볼 수 없지만 假髻가 원래 북방유목민족의 習俗이었으며¹⁷⁾ 중국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唐代에는 이것이 크게 유행했다¹⁸⁾ 고 하니 고구려에서도 假髻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고구려 벽화 중에서 市幘이라고 부를만한 假髻를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安岳 3號墳의 墓主 부인 및 시녀들의 머리 모양은 『周禮』注에 나와 있듯이 철사로 테를 만들고 곁에 머리털을 둘러 만든 것처럼 보인다. (그림 3)

이처럼 市幘을 假髻의 일종으로 본다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여자의 머리수건은 市幘이 아니라 巾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3> 市幘(安岳 3號墳)
[출처: 『高句麗古墳壁畫』]

2. 幘

(1) 고구려 幘 關聯 史料 고찰

고구려의 幘에 관한 기록은 史料 <1>, <2>, <3>, <5>, <8>, <15>에서 볼 수 있는데¹⁹⁾ 史料 <2>, <5>, <8>, <15>는 史料 <1>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史料 <1>과 <3>의 두 종류의 기록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國志』卷 30 魏書 30 高句麗

“公會時的 의복은 모두 錦繡로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한다. 大加와 主簿는 머리에 幘을 쓰는데 그 모양이 (중국의)幘과 비슷하나 뒤가 없고, 小加는 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弁과 같다.”

『南齊書』卷 58 列傳 39 高麗

“고구려인은 麤袴를 입고 冠으로는 折風—梁을 쓰는데 이를 幘이라 한다.”

이상의 두 기록을 검토해 보면 『三國志』에서는 幘과 折風을 별개의 관모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南齊書』에서는 동일물로 취급하고 있는 모순점을 발견하게 된다. 『三國志』高句麗傳의 전반부는 고구려의 사회상태를 기록한 民族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독특한 고구려 문화의 개성을 인정하는 면을 찾아볼 수 있어서 고대국가 형성의 初期相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²⁰⁾ 반면 『南齊書』高句麗傳은 社會相의 기록보다는 외교적인 封王, 朝貢 記事가 主內容을 이루고 있으므로²¹⁾ 고구려의 풍속에 관한 기록은 『南齊書』보다는 『三國志』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따

16) 李圭景, 앞 책, “竊我東方言 呼於如摩尼 於如者 圍之方言 摩尼者 首之方言 卽圍首之稱 婦女婚時 戴爲首飾” (손경자·김영숙, 앞 책, p.418에서 재인용)

17) 김용문, 앞 논문, p.215

18)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中世編, 東京: 文化出版局, 1984, p.195

19) <표 1> 참조

20) 朴性鳳, 『東夷傳高句麗關係記事의 整理』,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1. p.11

21) 朴性鳳, 앞 책, p.13

라서 本 考에서는 『三國志』記事에 의존해 幘에 관한 고찰을 진행시키고자 한다.

『三國志』高句麗傳에는 幘에 관한 記事가 한번 더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漢나라 때에 북치고 피리부는 樂工을 下賜하였으며, 항상 玄菟郡에 나아가 漢의 朝服衣幘을 받아갔는데 高句麗令이 그 名籍을 주관하였다. 그 후 차츰 교만 방자해져서 다시는 (玄菟)郡에 오지 않았으므로 동쪽 경계상에 작은 성을 쌓고 그곳에 朝服衣幘을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거기에 와서 가져가게 하였다. 지금도 胡人들은 이 城을 幘溝溲라 부르는데, 溝溲란 高句麗語로 城을 뜻한다.”²²⁾

이 記事의 앞부분을 보면 “玄菟郡에 나아가 漢의 朝服衣幘을 받아갔다.”고 했으니 幘은 고구려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관모가 아니라 中國에서 받아들인 관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漢民族의 독특한 思想構造인 中華思想은 역사 서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서, 대등적 입장에서 의 교류도 차등적 관계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국시대의 韓中關係에 있어서 使行기록의 표현은 거의 朝貢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면 대등한 입장에서 일반 관계라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²³⁾ 이 史料의 내용 또한 賜與關係가 아닌 交易關係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구려가 漢과 투쟁만이 아닌 외교 교섭을 통해 朝服衣幘을 받아들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 中國의 정부조직은 服制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니²⁴⁾ 中國의 발달된 정치제도 운영의 산물인 朝服衣幘을 받아들임으로써 中國의 정치제도 그 자체

를 배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정치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中國으로부터 받아오던 衣幘 등을 점차 자체 생산하여 갔다고 여겨지는데²⁵⁾ 이에 따라 衣幘의 형태에 고구려인의 개성이 가미되어 中國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나갔을 것이다.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後”라는 기록은 당시의 고구려 幘이 中國과 같지 않았음을 분명히 입증해 준다.

이상의 고찰은 『三國志』의 記事를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늦어야 서기 3세기까지의 상황을 말해줄 뿐이며 형태에 관한 기록이 너무 간략해서 幘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고찰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다만 벽화를 고찰하기에 앞서 논의의 편의상 中國의 幘에 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中國의 幘

幘이란 頭巾의 일종으로 頭髮 또는 首髻를 덮어 쓰이기 위한 간단한 頭巾狀의 관모인데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巾이 있다.²⁶⁾ 따라서 巾과 幘을 엄밀히 구별하는 것은 곤란한데 發生的으로 보면 巾은 머리를 싸는 布이고 幘은 머리에 감는 鉢卷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中國에서의 幘의 由來와 발전과정에 관해서는 『後漢書』輿服志와 『獨斷』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後漢書』卷 29 輿服志

“옛날에는 冠은 있었지만 幘은 없었다. 冠을 쓸 때 머리에 가하는 것으로 幘가 있었는데 이것은 머리에 물건을 엮을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戰國時代

22) “漢時 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於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溲 溝溲者 句麗名城也”

23) 서영수, “삼국과 남북조 교섭의 성격”, 『동양학』 제1집, 1981, p.187

24)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p.175

25) 이종욱, “高句麗 初期의 政治의 成長과 對中國關係의 展開”(전해중 編, 『東亞史의 比較研究』, 일조각, 1987), p.69~72

26) 이여성, 앞책, p.166

27) 杉本正年, 앞책, p.172

에 이르러서는 文·武官 모두 이것을 사용했다. 秦이 諸侯를 평정한 후 絳初裘 武將의 首飾으로 삼았으며 이것으로 貴賤을 표시했다. 그 후 차츰 顏題를 만들었다. 漢에 이르러서는 顏題에 巾을 가해 幘이라 했다. 孝文帝 때에 이르러 顏題를 높이고 耳를 만들었으며 巾을 높여 屋을 형성시키고 收를 만들었다. 上下群臣 貴賤 모두 이것을 썼는데, 文官은 長耳, 武官은 短耳의 幘을 썼다.”²⁸⁾

『獨斷』

“幘은 옛날에는 비천해서 冠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쓰던 것이었다. …元帝는 이마에 壯髮이 있어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幘을 승격시켜 착용했다. 群臣은 모두 이를 따랐다. 巾은 없고 지금의 半幘 같은 것이었다. 대머리였던 王莽이 幘에 巾을 가했다.”²⁹⁾

이상의 두 기록은 幘의 발생시기, 幘이 일반화된 시기, 屋을 가한 시기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幘의 발생시기에 관해서는 『後漢書』에서는 戰國시대의 絳初 이후로 보고 있으나 『獨斷』에서는 옛날에도 幘이 있었다고 하여 언제부터 幘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한데, 『獨斷』의 내용을 漢代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해 ‘옛날’을 漢初로 본다면 모순이 없을 것 같다. 즉 周, 戰國時代에는 幘은 없고 대신 幘의 前身이라고 볼 수 있는 頰나 絳初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여기에 顏題를 가해 幘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幘의 발생초기에는 卑賤한 者만이 幘을 썼다고 보면 뜻이 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幘이 언제 일반화되어 貴賤에 관계없이 사용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後漢書』에 따르면 그 시기를 文帝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고 『獨斷』에 따

르면 이보다 100년 이상 늦은 元帝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王宇淸은 『獨斷』의 저자인 蔡邕는 後漢시대의 사람이고 『後漢書』의 저자인 凡曄은 劉宋시대의 사람이니 蔡邕의 說이 더 믿을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文帝때에 幘의 제도가 정비되기는 하였으나 초기에는 卑賤한 사람이 주로 착용하고 귀족의 경우는 寡居時의 便服 정도로만 착용하다가 元帝 때 元帝 자신이 幘을 착용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 계급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³⁰⁾, 屋이 가해진 시기도 王莽 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屋, 顏題, 耳, 收가 가해지면서 幘은 冠 밑의 부속품으로서 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판모로 사용되기도 했다. 幘은 屋의 有無, 耳와 收의 長短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가 있었으며 색은 黑色이 보통이지만 郊祭時 착용하는 冕服用의 幘은 五時의 服色을 따랐고 武官이나 武官府에 근무하는 文官은 赤色의 幘을 썼다.

(3)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幘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幘은 형태상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보다 뒤가 솟아 있으면서 두갈래로 갈라진 幘과 앞보다 뒤가 솟아 있다는 점에서는 첫번째와 같지만 뒤가 갈라져 있지 않은 幘이 그것이다. (그림 4) 서술의 편의상 이들을 각각 第 1, 2 型 幘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第 1 型 幘은 德興里 古墳, 伏獅里 古墳, 安岳 3 號墳에서 보이고 있는데 외복의 형태를 알 수 없는 伏獅里 古墳을 제외하고는 모두 袍를 착용하고 있고 安岳 3 號墳의 儀仗旃手를 제외하고는 전부 높은 신분이며, 착용 상황은 모두 공식적인 자리이다. 이는 『三國志』의 “其公會衣服…大加主簿頭

28) “古者有冠無幘 其戴也 加首有頰 所以安物 故詩曰 有頰者弁 此之謂也 三代之世 法制滋彰…下至戰國 文武併用 秦雄諸侯 乃加其武將首飾 爲絳初 以表貴賤 其後稍稍作顏題 漢興續其顏 却探之 施巾 連題却覆之 今喪幘是其制也 名之曰幘 幘者頰也 頭首嚴頰也 至孝文 乃高顏題 續之爲耳 崇其巾爲屋 合後施收 上下群臣 貴賤皆服之 文者長耳 武者短耳”

29) “幘者古之卑賤執事 不冠者之所服也…元帝額有壯髮 不欲使人見 始違幘服之 群臣皆隨焉 然尚無巾 如今半幘而已 王莽無髮 乃施巾 故語曰 王莽禿 幘施巾”

30) 王宇淸, 『中國服裝史綱』, p.72



①

②

〈그림 4〉 幘 : ① 第 1 型 幘 (安岳 3 號墳)
 ② 第 2 型 幘 (修山里 古墳)
 [출처 : 『高句麗古墳壁畫』]

著幘”이라는 기록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第 1 型 幘은 공식석상에서 비교적 높은 신분층이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第 1 型 幘을 쓴 인물의 외복이 모두袍임에 비해 第 2 型 幘은 襦, 袴 차림의 인물이 주로 착용하고 있다. 신분층도 第 1 型에 비해 다양해서 上下 貴賤 모두 널리 착용한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의 幘은 1, 2 型 모두 收가 없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유행한 윗부분이 평평하거나 頭頂部가 움기된 平山幘³¹⁾과는 달리 後頭部가 높이 솟아 있어서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 중국과 달리 계급의 高下에 관계 없이 幘만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고구려의 幘은 독립된 관모로서의 성격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독립된 관모답게 屋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다.

3. 折 風

(1) 형 태

折風의 형태에 관한 기록은 史料 <1>, <2>, <4>, <5>, <6>, <8>, <13>, <15>에 보이는데 한결같이 “형태가 弁과 같다”고 되어 있다.

弁은 광의적으로는 古冠의 泛稱으로 이렇게 볼 때는 冕도 여기에 속하며, 협의적으로는 皮弁, 冠弁, 爵弁, 韋弁을 가리킨다.³²⁾ 협의적 의미의 弁의 형태에 관해서는 『釋名』에 “양손을 합장한 모습과 같다(弁如兩手相合拊時也)”고 되어 있어 앞뒤로 봉합선이 있는 左右 평면적인 형태일 것으로 여겨진다. 종류별로 구체적 형태를 살펴보면, 皮弁과 冠弁(委貌)은 모두 杯를 얹어놓은 듯한 형태로 委貌冠은 黑色 絹으로 만들고 皮弁은 사슴 가죽으로 만드는데 辟雍에서 大射禮를 행하는 公卿, 諸侯, 大夫는 委貌冠을 쓰고, 補佐役을 맡은 이는 皮弁을 썼다.³³⁾ 爵弁은 天地, 五郊, 明堂에 제사지낼 때 雲翹舞를 추는 樂인이 쓰는 관모로³⁴⁾, 冠上에 冕이 있는 형태로 보기도 하고 앞부분에 작은 돌출부가 있어 옆에서 보면 雀의 머리같이 보이는 형태로 보기도 한다. 韋弁은 韎韋로 만든 것으로 형태는 皮弁과 같다.³⁵⁾

이상에서 살펴본 弁의 형태에 따르면 爵弁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위가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弁’이라는 문자는 상형 문자로서, 冫, 冫, 冫, 冫 등이 변해서 된 것³⁶⁾이라 하니, 이것을 보아도 위가 뾰족한 三角狀의 관모임을 알 수 있다. 일찌기 이어성은 ‘弁’자의 ‘冫’는 관모의 三角狀을 표현하고 ‘冫’는 관모의 끈을 표현한 것이며 ‘弁’의 우리말인 ‘곶갈(=고깔)’도 頂上이 뾰족한 관모라는 뜻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

31) 張志立, “高句麗風俗研究”, 『東北亞歷史與文化』 제14호, 遼沈書社, 1992, p.228

32) 王宇清, 앞책, p.67

33) 『後漢書』 輿服志, “委貌冠皮弁冠同制…制如覆杯 前高廣後卑銳…委母以皂絹爲之 皮弁以鹿皮爲之 行大射禮於辟雍 公卿諸侯大夫行禮者冠委貌…執事者冠皮弁”

34) 『後漢書』 輿服志, “爵弁…祠天地五郊明堂 雲翹舞 樂人服之”

35)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上海: 中國戲劇出版社, 1983, p.48

36) 周錫保, 앞책, p.47

다.³⁷⁾

따라서 折風은 帽頂이 뾰족한 三角狀의 관모라고 생각되는데 벽화에 보이는 折風은 주로 흰바탕에 검은 테가 둘러져 있으며 左右 평면적 형태를 하고 있다. 모자의 크기는 머리에 완전히 눌러 쓸 정도는 아니어서 좌우에 달린 끈으로 머리에 고정 시킨 듯한데, 끈의 중간부를 잘라 귀가 나오도록 했던 것 같다.

(2) 착용신분층

折風의 착용신분층에 관한 기록은 史料 <1>, <2>, <3>, <5>, <8>, <9>, <10>, <12>, <14>, <15>에서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折風 착용신분층

書名	편찬연대	내용
三國志	3세기末	小加(公會時)
後漢書	5세기中	
梁書	7세기初	
南史	7세기中	
冊府元龜	宋代	
南齊書	6세기初	使人
北史	7세기中	人者
翰苑	7세기中	賤者
舊唐書	10세기初	國人
新唐書	11세기中	庶人

<표 2>를 살펴보면 『三國志』, 『後漢書』, 『梁書』, 『南史』, 『冊府元龜』, 『南齊書』에는 귀족 계급이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北史』, 『翰苑』, 『舊唐書』, 『新唐書』에는 모든 사람이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後漢書』, 『梁書』, 『南史』, 『冊府元龜』는 『三國志』의 記事를 그대로 인용하

고 있으므로 모두 3세기 이전의 풍습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南齊書』의 경우 “折風—梁謂之幘”이라 하여 折風과 幘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記事의 정확성을 믿기 어려운데 잦은 접촉으로 고구려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을 시기인 7세기 중엽(唐)에 편찬된 『隋書』에 使人은 鳥羽冠을 쓴다고 기록³⁸⁾되어 있는 것을 보면, 使人은 鳥羽를 꽂은 折風을 썼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北史』와 『南史』는 모두 唐의 李延壽가 편찬했는데 『南史』에서는 『三國志』의 記事를 그대로 인용했던 李延壽가 『北史』에서는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⁹⁾ 『北史』는 저자가 6년에 걸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南史』에 비해 기록이 자세한데,⁴⁰⁾ 『北史』에서 折風의 착용계층에 대해 『三國志』와 다르게 기록한 것은 『三國志』의 기록이 당시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北史』에는 蘇骨이라는 명칭이 보이는데, 이것은 賁子가 쓰는 관모라고 하면서 折風과 구별시키고 있음을 볼 때, 이 시기에는 더 이상 折風이 귀족계급의 관모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처음에는 折風이 小加의 公會時 관모로 착용되었지만 점차 하향전과되어 낮은 계층의 사람들까지 折風을 착용하게 되었으며 귀족들은 그들과 구별되어 보이기 위해 蘇骨을 쓰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隋書』에는 모든 사람이 皮冠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隋書』의 ‘皮冠’과 『北史』의 ‘折風’은 동일한 관모로 생각되므로⁴¹⁾ 折風의 재료가 가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벽화를 살펴보면 折風 착용인물이 대부분 낮은 계층이어서 이들 벽화가 제작되던 시기에 이미 折

37) 이어성, 앞책, p.189

38) <표 1>의 史料 <7> 참조

39) <표 1>의 史料 <8>과 <9> 참조

4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編, 『고구려사 연구Ⅱ』 史料篇,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p.1127~1128

41) 『北史』의 편찬자 李延壽는 『隋書』의 撰修에도 참여하였음을 생각해 볼 때, 『隋書』의 “人皆皮冠”의 ‘皮冠’과 『北史』의 “人皆頭著折風”의 ‘折風’은 동일한 관모라고 생각된다.

風의 하향전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벽화의 제작시기가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折風의 하향전파 시기의 下限은 4세기 후반 경으로 볼 수 있다.

4. 蘇骨

(1) 형태

7세기 중엽에 편찬된 『周書』와 『北史』에는 이전 기록에서 볼 수 없던 骨蘇와 蘇骨이라는 새로운 관모 명칭이 보인다. 『周書』에는 骨蘇라는 것은 丈夫가 쓰는 冠으로 주로 紫羅로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하며 官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鳥羽를 2개 꽂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北史』에는 蘇骨은 귀족계급의 冠인데 紫羅로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한다⁴²⁾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두 기록을 대조해 보면 紫羅로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한다는 일치점을 보이고 있으며 명칭에 있어서도 骨蘇와 蘇骨이라는 앞뒤 순서만 바뀐 이름을 갖고 있어서, 동일한 관모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周書』는 도중에 原本이 散失되어 『北史』로부터 亡失된 부분을 補綴하였다⁴³⁾고 하는데 補綴의 과정에서 蘇骨을 骨蘇로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이 관모의 명칭은 蘇骨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명칭의 규명은 형태 규명으로 직결되는데 일찌기 백남운은 骨蘇를 ‘골에 쓰는 것’으로 해석⁴⁴⁾한 바 있지만, 蘇骨을 옳은 명칭으로 볼 때 이여성이 蘇骨을 ‘聳立한 관모’로 해석하여 蘇骨도 折風과 마찬가지로 弁形 관모라 주장한 것⁴⁵⁾이 훨씬 설득력 있다. 실제로 鎧馬塚 벽화에는 紫色 弁形 관모에 장식을 하고 鳥羽를 꽂은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蘇骨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5) 신라



〈그림 5〉 蘇骨(鎧馬塚)
[출처: 『韓國美術全集』4 壁畫]

에서도 비단을 입히고 金銀 장식을 한 白樺樹皮製 弁形帽가 출토되고 있으므로 蘇骨은 기본형은 折風에 두면서 소재와 장식에 차이를 둔 관모였다고 생각된다.

(2) 착용신분층

蘇骨의 착용신분층에 관해서는 『周書』에서는 ‘丈夫’로, 『北史』에서는 ‘貴者’로 기록하고 있는데, ‘丈夫’란 원래 일반 남자를 통칭하는 말이니 두 기록 간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周書』에는 丈夫가 바지통이 넓은 옷을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⁴⁶⁾ 이러한 차림은 일반 서민의 窮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여기서의 ‘丈夫’는 일반 남자가 아니라 귀족 남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귀족 중에서도 鳥羽를 꽂을 수 없는 官品이 없는 귀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蘇骨 제작에 사용되는 비단이나 金銀을 일반 민중이 손에 넣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蘇骨은 귀족에 한 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42) <표 1>의 史料 <6>, <9> 참조

4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編, 앞책, p.1127

44)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범우사, 1989, p.200

45) 이여성, 앞책, p.190

46) <표 1>의 史料 <6> 참조

5. 鳥羽冠

고구려의 鳥羽冠에 관한 기록은 史料 <4>, <6>, <7>, <9>, <10>, <11>, <12>, <13>, <14>에서 볼 수 있는데 帽體, 插飾物, 착용신분층에 약간의 상이 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鳥羽冠의 종류와 착용신분층

書名	帽體	插飾物의 종류와 위치	착용신분층
魏書	折風	旁插鳥羽	謁奢, 太奢, 大兄, 小兄
周書	骨蘇	插二鳥羽於其上	有官品者
隋書	皮冠	加插鳥羽	使人
北史	折風	插二鳥羽	士人
翰苑	幘	金羽 金銀爲鹿耳加之幘上	貴者
通典	紫羅帽	飾以鳥羽	樂工人
舊唐書	羅冠 緋羅冠	插二鳥羽	官之貴者
舊唐書	紫羅帽	飾以鳥羽	樂工人
新唐書	青羅冠 絳羅冠	珥兩鳥羽	大臣과 다음 官位

<표 3>을 살펴보면, 帽體의 종류로는 折風, 骨蘇, 皮冠, 幘, 羅帽, 羅冠이 있는데, 皮冠은 折風과, 羅帽은 骨蘇(蘇骨)와 동일한 관모로 생각되므로 주로 弁形 관모에 鳥羽를 꽂았다고 볼 수 있다. 插飾物의 종류로는 천연 鳥羽와 金銀제의 鳥羽狀 혹은 鹿耳狀의 것이 있고, 鳥羽의 插飾 위치는 “旁插鳥羽”, “珥兩鳥羽”, “加之幘上”, “插二鳥羽於其上” 등의 표현으로 보아 관모의 양쪽이나 帽頂部에 꽂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鳥羽冠의 착용계층

은, 謁奢, 太奢, 大兄, 小兄, 士人, 使人, 大臣 등의 有官品者와 樂工人의 두 부류로 나뉘날 수 있는데, 관직에 있는 귀족계급에서 주로 착용했으며 樂工人은 귀족계급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鳥羽冠 착용이 허락된 신분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벽화를 보면 插飾物로 鳥羽 뿐만 아니라 鳥尾나 상당한 變形이 가해진 장식물을 插飾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천연 鳥羽를 꽂은 鳥羽冠의 경우 착용인물이 대부분 귀족인데 착용상황이 대개 수렵이나 野遊인 점으로 보아, 주로 야외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수렵을 할 때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舞踊人의 鳥羽冠 착용 모습을 볼 수 있어서 樂工人 뿐만 아니라 舞踊人도 鳥羽冠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舞樂인에게 귀족계급의 복식을 허용한 예는 백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⁴⁷⁾ 鳥尾를 插飾한 鳥羽冠은 舞踊塚과 竈神塚에서 볼 수 있는데 竈神塚 인물은 투구위에 插飾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武士의 투구에 鳥尾를 插飾한 것은 용맹함의 표시로 고구려를 포함한 고대 북방민족 간에는 오래전부터 武士의 상징으로 관모에 鳥羽를 꽂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다. 한편 東岩里 古墳에 보이는 관모의 前立飾은 매우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고구려인들이 천연의 鳥羽나 鳥尾를 插飾하는데서 한 걸음 나아가 소재와 형태면에서 창의적인 변형을 가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고구려 벽화 이외에 唐李賢墓 벽화와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서도 고구려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鳥羽冠 착용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벽화는 7세기 中後半에서 8세기 初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벽화에 묘사된 韓人을 고구려인으로 보기도 하고 발해인으로 보기도 하며 통일신라인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관모에 꽂혀 있

47) 권태원은 “百濟의 冠帽系統考”, 『사학지』 제16집, p.571에서, 『三國史記』 樂志 중에서 “舞者二人紫大袖裙袴章甫冠 皮覆”라는 기사가 있는데, 백제의 公服制度에 따르면 紫衣에 해당되는 官階는 6품 奈率 以上이 되어야만 하므로, 紫衣에 大袖로 된 裙袴를 입고 章甫冠에 皮覆을 갖춘 모습은 中宗 舞樂人에 대한 당시의 높은 處遇를 짐작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림 6〉變形 鳥羽冠(東岩里 古墳)
[출처 : 『조선유적유물도감』5]

는 것이 雙羽인지 雙角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며 아프리카 석굴 벽화에 묘사된 사신의 上衣는 중국의 團領이라기 보다는 國俗에 가까우므로⁴⁸⁾ 이들이 신라 사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아프리카 석굴 벽화 사절의 경우 관모와 복식이 고구려와 동일하고, 당시 고구려가 사마르칸트까지 사신을 파견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⁴⁹⁾ 이들을 고구려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벽화의 제작 시기가 분명치 않으므로 고구려 멸망 이후에 제작된 것이라면 고구려의 복식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리라 여겨지는 초기 발해인⁵⁰⁾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唐 李賢墓 벽화에 묘사된 사절의 경우에도 大袖直領袍, 大口袴, 黃葦履라는 복식이 신라보다는 고구려 복식에 가깝다. 벽화의 제작시기가 고구려 멸망 후인 675년이나 706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제작시기로만 본다면 발해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그림이 실제로 使臣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만들어둔 職貢圖의 寫本을 보고 그렸을 가능성도 있으므로⁵¹⁾ 고구려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이 고구려인인건 발해인인건 간에 그들의 복식이 고구려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벽화에 보이는 鳥羽冠을 고구려의 鳥羽冠으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고구려의 鳥羽冠이 외국에 파견되는 사신의 관모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階書』의 “使人加插鳥羽”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使人이란 중국인이 自國에 파견된 외국 사신을 총칭한 말이라고 하는데⁵²⁾ 이렇게 볼 때 唐 李賢墓 벽화나 아프리카 석굴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사신이 鳥羽冠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6. 羅冠

羅冠에 관한 기록은 史料 〈12〉, 〈14〉에서 볼 수 있는데, 오직 왕만이 白羅冠을 쓰고 金으로 장식하며 관직이 높은 者(大臣)는 靑羅冠을 쓰고 그 다음은 緋羅冠(絳羅冠)을 쓰는데, 새깃을 두개 꽂고 金銀으로 장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羅冠은 東岩里 古墳을 제외하고는 모두 內冠과 外冠으로 구성된 二重冠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특히 龍神塚, 八清里 古墳, 安岳 3號墳의 外冠은 白色의 거친 絹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서 이것이 바로 왕만이 썼다는 白羅冠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7〉을 보면 白羅冠은 內冠의 後半部만을 덮는 커다란 상자 모양의 관모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관모로 중국의 武冠이 있다. (그림 8) 南北朝時代에 北朝에서 크게 유행한⁵³⁾ 籠冠은 이 武冠이 발전한 것으

48) 김민지,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101

49) 노태돈, “高句麗·渤海人と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대동문화연구』 제23집, 1989, pp. 243~245

50) 김민지, 앞논문,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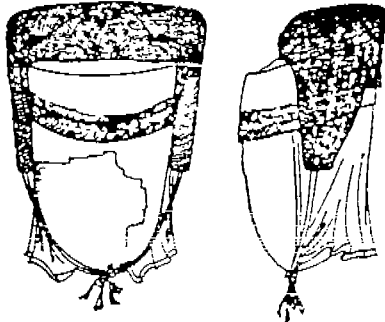
51) 김원룡, “唐 李賢墓 壁畫의 新羅使(?)에 대하여”, pp.20~21

52) 이용범, “高句麗人の 鳥羽插冠에 對하여”, 『동국사학』 제4집, 1956, pp.6~7

53)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p.63



<그림 7> 白羅冠(安岳 3號墳)
[출처 : 『고구려문화사』]



<그림 8> 武冠(武威磨嘴子漢墓)
[출처 : 『中國古代服飾研究』]

로 士庶男女 모두 이를 착용하였다.⁵⁴⁾ 籠冠은 隋, 唐 시대까지 계속 착용되었으며, 宋, 明代에는 금속으로 뼈대를 만들고 頭頂部를 方形으로 변형시킨 관모가 籠巾이라는 명칭으로 改名되어⁵⁵⁾ 착용되었다. 고구려 벽화 중에도 籠冠이 보이고 있으며 백제 부여 定林寺址에서 출토된 陶俑 과편 중에도 北朝 특유의 籠冠을 쓴 人物像이 있어서⁵⁶⁾ 당시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만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籠冠 착용인물이 모두 신선이고 定林寺址 籠冠人物像도 神衆像이나 羅漢像일 것으로 생각되므로⁵⁷⁾ 籠冠

이 중국에서처럼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白羅冠이 왕의 관모로 착용된 것을 볼 때 籠冠이 일부 귀족층에서 착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羅冠 착용인물 가운데 東岩里 古墳 인물들은 二重冠이 아닌 單一冠을 쓰고 있으며 冠의 색도 붉은색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림 9) 이들은 二重冠을 쓴 인물들과는 달리 襦와 袴를 입고 있는데, 이는 靑羅冠과 緋羅冠(絳羅冠)을 쓰는 사람은 衫筒袖와 大口袴를 입는다는 기록⁵⁸⁾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緋羅冠(絳羅冠)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 중 한사람의 관모에는 變形 鳥羽처럼 보이는 것이 꽂혀 있는데 이것은 緋羅冠(絳羅冠)에 鳥羽 장식을 한다는 문헌 기록과도 일치한다. 비록 벽화에서 靑羅冠으로 보이는 예는 찾아볼 수 없지만 緋羅冠과 형태가 같았을 것이며, 왕이 쓰는 白羅冠만이 이들과 구별되는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림 9> 緋羅冠(東岩里 古墳)
[출처 : 『조선유적유물도감』5]

54) 中國服飾大辭典編委會 編, 『中國服飾大辭典』, 山西人民出版社, 1992, p.316

55) 龍田出版社編輯部 編,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龍田出版社, 中華民國 70年, p.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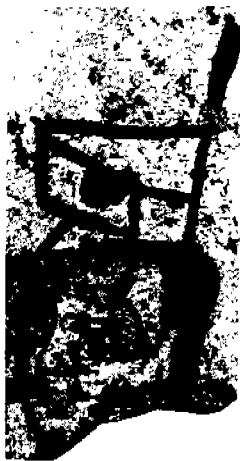
56) 권태원, 앞논문, p.568

57) 김동욱, 『백제의 복식』,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p.71

58) <표 1>의 史料 <12>, <14> 참조

7. 角 冠

문헌 기록에는 없지만 고구려 벽화에는 각진 형태의 冠을 쓴 인물이 몇몇 눈에 띈다. (그림 10) 이 관모는 머리에 가볍게 얹는 기분으로 썼던 것 같은데 이러한 각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 시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었을 것이므로, 앞에서 뒤로 한번만 봉합하면 되는 弁形 관모보다는 발달된 단계의 관모로 볼 수 있다. 착용인물이 대개 國俗인 襦, 袴 차림이며 주변국에서 이러한 관모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고구려 특유의 관모라고 생각된다. 착용신분층은 귀족계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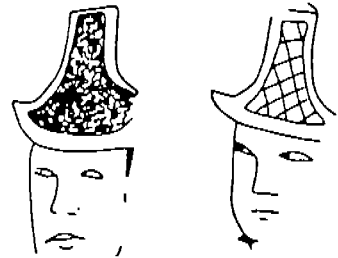
〈그림 10〉 角冠(東岩里 古墳)
[출처 : 『조선유적유물도감』5]

8. 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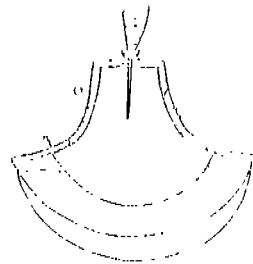
笠은 禦暑禦雨의 목적에서 발생한 실용적 성격이 큰 관모로, 초기의笠은 우산에서 손잡이만을

없앤 듯한 오늘날의 方笠型이었으며⁵⁹⁾ 후세에는 이것이 좀 더 발달되어 帽와 笠의 구별이 있는 平涼子型이 생겨났다.

方笠型의 경우 최근 발굴된 東岩里 古墳⁶⁰⁾에서 착용례를 볼 수 있는데 형태가 金冠塚 출토 笠形帽와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11, 12) 金冠塚 출토 笠形帽는 착용인물과 용도에 대해 학자들간에 異見을 보이고 있어서 귀부인의 나들이용 관모로 보기도 하고 남자의 수렵용 관모로 보기도 한다.⁶¹⁾ 天馬塚에서도 이와 비슷한 笠形帽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발굴조사단측에서는 이것을 투구로 보고하고 있다.⁶²⁾



〈그림 11〉 方笠型 冠帽(東岩里 古墳)
[출처 : 『북한문화유적발굴개보』]



〈그림 12〉 金冠塚 출토 笠形帽
[출처 : 『慶州金冠塚及其遺寶』]

59) 『篇海』, ‘笠笠以竹爲之 無柄曰笠 有柄曰笠’

『急就篇』, “笠笠皆所以禦雨也 大而有把手執而行 謂之笠 小而無把 首戴以行 謂之笠”

60) 1987년에 조사된 무덤으로 발굴 당시 벽화는 이미 오래전에 박락되어 흙 속에 묻혀 있었다. 조각들로 남아 있는 하지만 벽화 내용이 풍부하고 색 역시 선명하게 남아 있어 주목되는데 특히 모자와 신발의 형식이 이처럼 다양한 무덤이 알려진 예는 없다고 한다. (『북한문화유적발굴개보』,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pp.212~213, 『조선유적유물도감』5 고구려편(3), p.245)

61) 이여성, 앞책, pp.145~147, 이은창, 앞책, pp.264~266

62) “金銅製 三枝形 立飾附 투구”, 천마총 발굴 조사 보고서, 문화재 관리국, 1974, pp.110~111

이렇게 여러가지 견해가 나오는 것은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새로 발견된 東岩里 벽화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東岩里 벽화의 笠 착용인물은 세 사람 모두 남자이므로 일단 부인용 관모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관모에 붉은색 비단이 사용된 듯 상당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투구라기 보다는 귀족들이 狩獵時 착용한 고급 관모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삼국시대의 狩獵은 식량 공급을 위한 생산적 활동의 단계로부터 전환하여 귀족들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더욱 후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오락적인 遊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⁶³⁾ 따라서 귀족들은 蔽陽이라는 실용적 목적과 권위와 신분의 상징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만한 관모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생겨난 관모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층에서는 帽頂이 둥글고 차양이 넓은 平涼子型 笠을 착용한 듯한데 이러한 예는 龜神塚과 安岳 1號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9. 金銅冠

고구려 상류층에서는 관모를 金銀으로 장식⁶⁴⁾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모 자체를 이런 재료로 만들기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다.

鎧馬塚의 墓主로 보이는 인물의 관모(그림 13)는 弁形 관모 위에 翼狀飾이 뒤로 젖혀져 있으며 外冠의 輪에 긴 花枝狀 立飾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백제와 신라의 金冠 內冠의 翼狀飾과 金冠 外冠의 立華飾에서 보이는 수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것이 金屬製 관모임을 짐작



〈그림 13〉 金屬製 冠帽(鎧馬塚)

[출처: 『韓國美術全集』4 壁畫]

케 한다.⁶⁵⁾ 이러한 金屬製 관모의 존재는 고구려의 옛 터에서 透刻草花紋金銅冠과 透刻忍冬紋金銅冠이 발견됨으로서 더욱 분명해졌다. 透刻草花紋金銅冠은 폭이 좁은 반타원형의 테두리에 外冠格으로 草花紋을 透彫한 金銅板을 세우고 內冠格으로 草花紋金銅立飾을 左右에 세운 것으로⁶⁶⁾ 고구려 고분내에서 발견된 유품 중에서는 가장 관모다운 형태를 갖춘 것이다. 또 透刻忍冬紋金銅冠은 金銅板으로 만든 冠帶에 火焰처럼 뽕은 忍冬紋 立華飾이 5개, 花形 立華飾이 2개 세워져 있으며⁶⁷⁾ 冠帶의 左右에 댕기 모양의 金銅板 장식이 늘어뜨려져 있다.

이상의 두가지 金銅冠 이외에 金銅冠形의 金具가 眞坡里 1號墳에서 출토되었는데 이것의 용도에 관해서 被葬者의 頭枕 양측에 장식용으로 두었던 金具라고 보는 견해와 冠飾金具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논의에서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透刻草花紋金銅冠과 透刻忍冬紋金

63) 이은창, 앞책, p.266

64) 〈표 1〉의 史料 〈6〉, 〈7〉, 〈9〉, 〈10〉, 〈12〉, 〈14〉 참조

65) 이여성, 앞책, p.115

심재완·이은창, 『한국의 관모』, 영남대신라가야문화연구소, 1972. p.11

66) 황호근, 『한국장신구미술연구』, 일지사, 1976. p.96

67) 서지민, 『裝身具史』, 한국장신구연구원, 1986. p.29

銅冠의 존재에서 고구려에 金銅冠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출토된 유물의 數가 적고 불상의 寶冠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구려에서는 金銅冠이나 金冠이 신라에서 만큼 애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문헌과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고구려 관모를 고찰한 결과, 巾, 幘, 折風, 蘇骨, 鳥羽冠, 羅冠, 角冠, 笠, 金銅冠의 아홉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巾은 머리에 두르는 手巾狀의 관모로 남자의 巾은 실용적 성격이, 여자의 巾은 儀禮的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형태상 結首式과 覆髮式의 두 종류가 있다. 幘은 중국에서 淵源한 관모이지만 중국과는 달리 收가 없을 뿐 아니라 後頭部가 높이 솟아 있으며 신분의 高下를 막론하고 주로 독립된 관모로 사용하였다. 앞보다 뒤가 솟아 있으면서 두갈래로 갈라진 幘과 뒤가 갈라지지 않은 幘이 있는데, 前者는 높은 신분층이 공식석상에서 착용했고 後者는 上下貴賤 모두가 널리 착용했다. 折風은 帽頂이 뾰족한 三角狀의 관모로 재료에는 주로 가죽이 사용되었으며 초기에는 小加가 公舍時 착용하는 관모였으나 점차 하향전파되어 일반인의 관모로 자리잡았다. 蘇骨은 金銀 장식을 한 비단제 弁形 관모로 귀족이 착용했다. 鳥羽冠은 鳥羽나 鳥尾, 혹은 金屬製 鳥羽飾을 插飾한 관모로 주로 야외수렵시 귀족층에서 착용했으며, 武士, 외국에 파견되는 사신, 舞樂人의 관모로 사용되기도 했다. 羅冠은 최상층의 관모로 왕은 白羅冠, 大臣은 靑羅冠, 다음 지위의 관리는 緋羅冠(絳羅冠)을 썼다. 白羅冠은 중국의 武冠과 유사한 형태의 網狀 大冠으로 內冠과 함께 착용하는 二重冠의 구조를 가진데 비해 靑羅冠과 緋羅冠은 單一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角冠은 귀족층에서 착용한 고구려 특유의 관모로 생각된다. 笠은 禦暑禦

雨의 목적에서 발생한 관모로 方笠型과 平涼子型의 두 종류가 있는데 前者는 귀족이, 後者는 일반 서민들이 수렵시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金銅冠은 관모에 金銀 장식을 하던 것에서 발전한 것으로 백제, 신라의 金冠과 유사한 양식의 관모가 鐵馬塚 벽화에 보이고 있으며 金銅冠이 고구려의 옛터에서 출토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모 이외에 天王地神塚과 安岳 2號墳에서 여성들이 차양있는 관모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天王地神塚의 경우 이것을 관모로 보기도 하고 綵珠로 보기도 하는데⁶⁸⁾ 安岳 2號墳에서도 비슷한 관모를 쓴 여인의 모습이 보이므로 이것을 머리에 동여맨 비단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神仙의 관모 중에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관모는 아니었을 것이며 畫工이 神仙다운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弁形 관모나 幘을 變形시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고구려 관모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도하였으나 사진이나 그림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後代나 周邊國과의 비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족한 점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참고문헌

- 1) 강순제, “우리 冠帽의 始末에 關한 研究—男子 便服 冠帽를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2) 권태원, “百濟의 冠帽系統考”, 『사학지』 제16집
- 3) 김동욱, 『백제의 복식』,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 4) 김민지,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68) 이은창, 앞책, pp.306~308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5) 김용문, “假鬘와 步搖에 관한 研究 -中國을 中心으로-”, 『服飾』 18호, 한국복식학회, 1992
- 6) 김원룡, “唐 李賢墓 壁畫의 新羅使(?)에 대하여”, 『考古美術』 123·124호, 1974
- 7) 노태돈,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대동문화연구』 제23집, 1989
- 8) 박성희, 『東夷傳高句麗關係記事의 整理』,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1
- 9)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범우사, 1989
- 10) 서영수, “삼국과 남북조 교섭의 성격”, 『동양학』 제1집, 1981
- 11) 서지민, 『裝身具史』, 한국장신구연구원, 1986
- 12) 손경자·김영숙, 『한국복식사자료선집』 조선편Ⅲ, 교문사, 1982
- 13) 심재완·이은창, 『한국의 관모』, 영남대신라 가야문화연구소, 1972
- 1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編, 『고구려사 연구Ⅱ』史料編,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 15) 이여성, 『조선복식고』, 백양당, 1947
- 16) 이용범, “高句麗人의 鳥羽插冠에 對하여”, 『동국사학』 제4집, 1956
- 17) 이은창, 『한국 복식의 역사』 고대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8
- 18) 張末元 著, 金英淑 譯, 『漢朝服裝圖樣資料』, 東洋服飾研究院, 1984
- 19) 전해중, 『東亞史의 比較研究』, 일조각, 1987
- 20) 『조선유적유물도감』 5·6 -고구려편(3·4) -, 평양: 외국문중합출판사, 1991
- 21) 『천마총 발굴 조사 보고서』, 문화재 관리국, 1974
- 22) 황호근, 『한국장신구미술연구』, 일지사, 1976
- 23) 林巳奈夫, 『漢代の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昭和 51年
- 24)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 54年

- 25) _____,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東京: 文化出版局, 1984
- 26) 相川佳子, 『續衣の文化人類學』, P.H.P 研究所, 1983
- 27) 龍田出版社編輯部 編,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龍田出版社, 中華民國 70年
- 28)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中華民國 56年
- 29) 張志立, “高句麗風俗研究”, 『東北亞歷史與文化』 제14호, 遼沈書社, 1992
- 30)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上海: 中國戲劇出版社, 1983.
- 31) 周汎·高春明, 『中國歷代婦女裝飾』, 香港: 三聯書店有限公司, 1988
- 32) 中國服飾大辭典編委會 編, 『中國服飾大辭典』, 山西人民出版社,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Kwanmo of Kokuryo

Jung Wan Jin · Lee Soon W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ll kinds of Kwanmo of Kokuryo.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nine kinds of Kwanmo in Kokuryo : Kun(巾), Chaik(幘), Jeolpoong(折風), Sogol(蘇骨), Jowookwan(鳥羽冠), Rakwan(羅冠), Kagkwan(角冠), Rip(笠) and Kumdongkwan(金銅冠). Kun(巾) is a piece of cloth which covers hair. There are two types of Kun(巾) : Hair band type and entire head cover type. Chaik(幘) was originated in China, but people of Kokuryo didn't wore chinese Chaik(幘) as it

was. They created unique shape of their own. Jeolpoong(折風) is the cone-shaped kwanmo which is chiefly made of leather. In the early period it was worn by the nobility, but gradually trickled down common people's Kwanmo. Sogol(蘇骨) is the cone-shaped Kwanmo which is made of silk and decorated with gold and silver. Only the nobility wore it. Jowookwan(鳥羽冠) is the kwanmo decorated with natural bird feather or metallic feather. Mainly it was worn by the nobility in hunting. Besides, warriors, diplomats, dancers and musicians wore it. Rakwan(羅冠) was worn by the highest class. There were three kinds of Rakwan(羅冠); Baekrakwan(白羅冠), Cheongrakwan(青羅冠) and Birakwan(緋羅冠). The king of Kokuryo wore Baekrakwan(白羅

冠). It was similar in shape to chinese Mookwan(武冠). Kagkwan(角冠) was the kwanmo unique to Kokuryo. It was used by the nobility. Rip(笠) was originated on purpose to protect people from the sunshine or rain. There were two kinds of Rip(笠); Bangrip(方笠) and Pyungyangja(平涼子). The former was used by the nobility, the latter was used by common people in hunting. The Kwanmo which was decorated with gold and silver developed into Kumdongkwan(金銅冠). The Kwanmo which is similar to Kumkwan(金冠) of Baekje and Shilla has been shown in Kaimachong(鎧馬塚) and Kumdongkwan(金銅冠) was excavated in the ancient tombs of Kokuryo.